

마음, 비우면 극락 채우면 지옥

지옥 스님의 가르침

마음을 비우면 바로 그곳이 극락이요, 번뇌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 하는 그곳을, 속세에서는 우주세계라 합니다. 우주세계는 3요소가 있어야 하고, 모양이 있어야 하고, 흠수(缺)여야 하고, 음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모양이 있고 수분을 흡수하고 암수의 음양이 있죠.

사람은 죽으면 윤회합니다. 이생에서 선행을 많이 해 선업을 쌓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축생이나 아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서 1초라도 더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윤회해서 태어나면 편찮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못하고 집착에 붙들려 중음신(中陰身)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내가 관에 들어가서 보면 떠돌아다니는 중음신들이 먹어야 하거든요. 중음신은 1년이 하루예요. 1년에 한 끼 먹고도 사는 겁니다. 중음신은 3요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 닿는 곳 가족들에게 붙어서 대신 먹고 사는 거죠.

중음신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물체를 짚어낸 것처럼 집이 돼서 몸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는데 병원 가봐도 병명도 나오지 않아요. 또 몸이 약해져서 면역력도 떨어져 다른 병도 쉽게 생기죠.

말법시대엔 오면 스님이나 사찰에서도 집을 보고 그런다잖아요. 지금이 말법시대예요. 그래서 점치고 이런 것들이 윤행해요.

내 마음이 공(空) 상태에 들어가 화두를 잡고 관하면 중음신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붙지 못하지. 내가 잡념이 들었을 때 생애 동안 집착만이 남아 있는 중음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말법시대라도 정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정도로 가느냐. 하심하고 공부해서 오로지 정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

사회가 혼란하고 각박할수록 점·사주 등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문제입니다. 점 봐서 나쁘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주고 제치내고 부처 사서 붙이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덕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말법시대에는 이기주의와 사기가 판을 쳐요. 우리 불교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 윤리 도덕을 살려야 해요. 지장보살 이타사상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지옥에 중생이 없어야 성불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이타사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국토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왜 지장보살일까요. 관음보살은 산 사람을 제도합



물질시대는 이타사상이 이끌어야
제 그릇에 맞지 않는 욕심은 불행
이 세상 공짜 없어... "덕 쌓으세요"

한달은 <지장경>을 독송하도록 합니다. 신도들에게도 법문만 듣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절에 오는 목적은 성불이예요. 팔만대장경에서 설한 법은 부처님께서 불자들을 성불로 이끌기 위해 각기 좋아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방편인 겁니다.

요즘 불서도 많잖아요. 그것 뿐이니까. 불교방송 불교TV 등 방송도 있고, 불교계 신문들도 많잖아요. 사경공덕을 말하는데 사실 옛날에 사경했던 이유는 책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니까. 사경만 죽어라 한다고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워 참된 인생을 살아야, 사람 노릇 제대로 해야 성불하는 겁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하면 돼요. 속이지 않고 참되게 살기 위해 불도를 닦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 의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정진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덕을 쌓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만 바로 세우면 주위에서 저절로 추앙해줍니다. 그것이 불도예요. 사랑을 참되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부터 모범이 돼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해보십시오. 부모는 거짓말하고 잘못 하면서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제대로 하면서 자식한테도 말해야죠. 그래야 통합니다.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모두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스님도 시주를 받으면 열심히 수행하고 뒤에서 신도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보시 역시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면 스님이라도 업장을 많이 짓게 됩니다. 일하지 않고 시주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빈하게 똑바로 불도를 닦아 신도를 이끌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대로 쌓입니다.

열차가 탈선하면 철로에 다시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렇듯 신도들이, 불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스님이 나서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의 의무예요.

어려운 이에게 보시를 하면 아무리 무수상 보시라 해도 어느 때인가 나한테 그 복덕이 돌아옵니다.

제가 관(觀)에 들어보니까 인연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만나는데 참 힘들어요. 부부가 죽어서 내생에 다시 만나자 하지만 개개인의 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몇 겁생에 가다가 한 번 만날까 말까 한거죠.

우리 은사스님이 내 범명을 참 잘 지어주셨어요. 지족(知足)만 하면 바로 극락이고 부처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 진리가 모두 내 거예요. 그래서 중이 가장 큰 도둑놈이지. 작은 것 아닌 큰 것, 우주를 탐을 내잖아요. 허허허.

정리=김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6>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고

식당에서 단골손님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자 식당 주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손님의 아이를 야단칠 수 없고 다른 테이블 손님 눈치는 보이고 해서 말입니다. 음식 값을 치르고 나오는 나에게 그 식당 주인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신들 손자더러,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딱 내 심정이 그래요.”

돈을 벌여주니 고맙지만 얼른 먹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솔직한 식당주인의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고.’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를 어찌면 그리도 정확하게 표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손자들은 모처럼 찾은 할아버지 집에서 편히 머물지 못하고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무질라대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은 조부모의 손도 한 번 잡아보지 않습니다. 짜증꾸궂해서 징그럽다

노년의 여유 양보하는 조부모들 지혜와 자비의 양분과 물을 주며 튼튼한 보리수 자라게 할 ‘정원사’

최근 은퇴 후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거사님 한 분이 외손녀를 돌봐야 한다며 바깥활동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운 보살님 한 분은 내년부터 손자를 봐줘야 한다면서 마음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은 절대로 손자 맡지 말라며 온통 반대라고 합니다. 기껏 길러봐도 은혜도 모르고 제 부모만 찾으니 아무 공도 없을 뻔터라 힘에 부치고 자칫 원망만 살 뻔이기에 때문입니다.

손자는 예쁜지만 머느리거나 혹은 사위가 하는 짓이 명따지지 않아서 돌봐주기 싫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손자를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말리지만 암만 생각해보도 정답이 없어요. 내가 정답을 만들어야지요.”

정자 짙은 부모는 낳았으니 길러야 한다는 의무감, 남보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자식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유를 빼앗겼다는 서운함 등이 얽혀서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느라 잔정이나 재미를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숨 가쁜 삶을 어느 정도 거쳐 오고 난 뒤에야 새삼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절이 손자손녀를 보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에게는 엄격하기 이를 데 없던 사람들도 손자손녀에겐 한없이 다정다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꺼이 황금같은 노년의 여유를 손자에게 양보하는 두 분에게는 손자들만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당신의 무르익은 연륜과 지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더욱 알차게 삶을 꾸어줄 ‘희망과 생명의 싹’일 것입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라고 합니다. 이 둘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축축하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어야 자라거나 나무로 자라납니다. 당신의 품을 열어 주고 수고를 자청하시는 조부모, 외조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튼튼한 보리수를 자라게 할 세상에서 가장 솜씨 좋은 정원사입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근면의 운남성 차업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심(宜興) 정산 황윤산의 홍다원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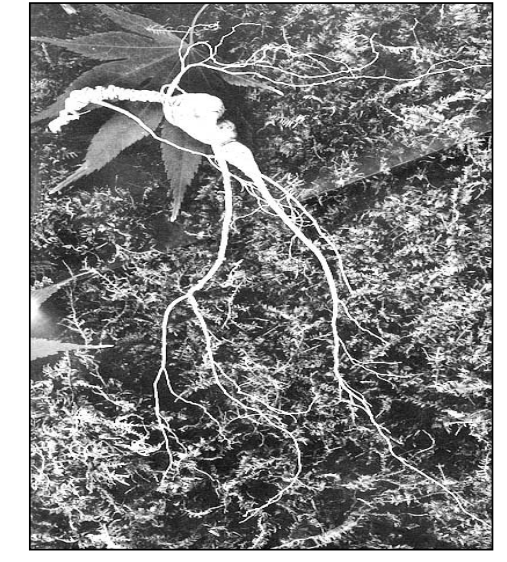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元·氣·回·復 송년 및 새해맞이 특별할인가 대 판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중경하음은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제에게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심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치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음은 스님 오늘날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 보유)
- 자연산산 문익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